

朝鮮時代 黑磁의 製作樣相과 性格

— 문헌기록과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

서지영*

- I. 머리말
- II. “흑자”의 어의와 용례
- III. 흑자의 제작양상
- IV. 흑자의 제작 시기별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흑자란 검은색조의 유약이 시유된 자기를 일컫는다. 흑자는 전라도 일대의 가마에서 초기 청자와 함께 생산되기 시작하여 고려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되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제작된 흑자는 기형과 유색·제작 방법에서 분청사기나 백자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¹ 그 이유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도자 연구가 분청사기와 백자에 집중되어 왔으며, 흑자는 확실한 편년작이 없고 연구 대상 자료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각 지역에서 흑자 가마터가 발굴 조사 되고 흑자 원료의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흑자 연구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따라서 본 논문은 도자사 연구 영역의 외연을 넓혀 조선시대 흑자에 주목하고 제작양상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흑자의 어의와 용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흑자 원료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다른 자기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살펴 흑자의 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아가 흑자가 제작된 생산지를 검토하여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양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기종과 기형, 번조 방법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흑자의 제작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출되는 흑자의 시기별 제작 특징을 규명하여 조선시대 흑자의 도자사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흑자”의 어의와 용례

1. 흑자의 정의

흑자에서 黑은 ‘검다’는 의미로 그릇의 유색을 나타내고, 磁는 ‘사기그릇’ 즉, 그릇의 질을 의미한다(도 1). 이처럼 사전적인 의미의 흑자는 검은 유색을 띠는 자기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청자·분청사기·백자보다 유약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 담갈색-흑갈색을 띠는 녹갈유자·흑갈유자·석간주자기 등도 흑자로 통칭 되고 있다. 오늘날의 ‘흑유자기’는 유약의 색깔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르러 붙여진 것이며, ‘흑유·흑갈유와 같이 그릇의 재질을 생략하고 유약의 색을 강조하여 부르기도 한다.’²

¹ 진홍섭, 『청자와 백자』(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 204; 원주안, 「석간주 陶磁器에 관한 研究」(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姜敬淑, 『韓國陶磁史』(일지사, 1989), p. 356;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문예출판사, 1991), p. 87; 『너그러움과 해학』(학고재, 1998), p. 45; 尹龍二, 「高麗·朝鮮時代 砂器 그릇-綠靑瓷·黑(褐)釉·石間硃」, 『고려·조선시대 사기그릇전』(연세대학교박물관, 1994), pp. 145-167; 羅善華, 『甕器淵源小考』,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0), pp. 11-21; 이정복, 「석간주(石間硃)에 관한 고찰(考察)」, 『고려·조선시대 흑유와 석간주』(동산도기박물관, 2005), pp. 117-125; 남진주, 「朝鮮時代 烏瓷의 개념과 특징」, 『역사와 담론』56(호서사학회, 2010), pp. 437-469.

² 진홍섭은 ‘흑유자기’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철분이 많이 섞인 유약을 사용하여 구워내면 흑갈색 또는 암갈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정의하였다. 강경숙, 정양모, 윤용이는 ‘흑유·흑갈유·석간주’ 용어를 사용했는데, 강경숙은 조선시대의 도자를 구분할 때 순백자, 상감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조선 청자 이외의 기타류로 石間朱, 雜釉, 黑釉, 토기를 분류하여 석간주와 흑유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정양모는 유약 속에 산화철분이 8% 내외의 들어갈 유약의 발색이 갈색 내지는 흑갈색인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와서 유약의 색이 암갈색으로 된 石間硃라 불리는 흑

또한 조선 후기의 『林園經濟志』나 『五洲衍文長箋散稿』·『五洲書種』을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에서는 검다 '烏'와 사기그릇 '甞'가 결합된 '烏甞'³가 확인되는 한편,⁴ 조선 말기 이후에는 검은색의 유약을 만드는 안료와 주로 제작된 대표기형에 따라 석간주항아리로,⁵ 검은 유약을 시유한 모양이 옷칠을 한 그릇과 같다고 하여 칠기로 불리기도 했다.⁶ 이와 같이 문헌에 기록된 오자와 칠기나 오늘날 관습처럼 불려온 흑자 또는 석간주자기는 자기의 빛깔, 유색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표 1).⁷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청자, 백자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흑자의 범위는 번조 후 발색된 유면이 담갈색에서 흑색조를 띠는 자기로 정의하였다.⁸



도 1 <흑자편병>, 15세기, 높이 22.5cm, 구경 4.3cm, 경기도박물관

유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윤용이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었을 때에 흑색·흑갈색을 띠는 자기로 정의하였으며, 반자기질이나 자기질의 태토를 이루어 기벽이 목직하거나 가벼우며, 유색이 짙고 여린 경우에 따라 흑유·흑갈유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진홍섭, 위의 책, p. 204; 姜敬淑, 위의 책, p. 356; 鄭良謨, 위의 책, p. 87; 尹龍二, 위의 논문, pp. 145-167.

³ 문헌기록에는 烏甞·烏甞器·烏磁器·烏指器·오지 등의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烏甞로 통칭하였다.

⁴ 徐有集, 『林園經濟志』, 『瞻用志』卷二; 李圭景, 『五洲書種』, 『陶窯類』;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華東陶窯辨證說』.

⁵ 淺川巧, 『朝鮮陶磁名考』(工政會出版部, 1931), pp. 117-158;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심우성 역, 『조선의소반·조선도자명고』(학고재, 1996), pp. 157-188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容器】여덟모가 난 것을 팔모항아리, 鐵釉를 씌운 것을 석간주항아리라 부르는 등 형태와 유약의 종류에서 나온 명칭도 있다.

【陶磁原料】석간주를 조합한 유약을 바른 옛 빛깔의 항아리를 보통 석간주항아리라 부른다.

【陶磁의 種類】鐵釉를 응용한 사기는 石間硃沙器이며, 맨 바탕에 무늬가 없는 사기는 白沙器, 粉甞 또는 白器이다.”

⁶ “칠기그릇은 烏只보다 바탕이 약간 정밀하며, 유약에 광택이 있고, 언뜻 보아 漆器와 같은 느낌을 준다. 원래 칠기라 하면 옷칠을 한 토기 또는 목기를 말하는데, 그것에서 변하여 칠기와 같은 광택이 있는 소위 덴모쿠·아메·철유 등의 도기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淺川巧, 위의 책, p. 156; 아사카와 다쿠미, 심우성 역, 위의 책, p. 187.

⁷ 남진주는 백토를 태토로 하고 석간주나 오자토 등의 철분이 다량 함유된 유약을 발라 번조한 것에 한정하여 오자로 보았으며, 석간주·칠기와는 구분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진주, 앞의 논문(2010), pp. 448-459.

⁸ 흑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흑자를 자기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가마터 출토 흑자의 제작양상을 살피며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표 1 흑자의 용어 분류

| 시기 | 용어 | 관계자료 |
|----------|------------------------------------|--|
| 1123년 | 烏盞 | 『高麗圖經』, 卷32, 器皿, 茶組. |
| 1756년 | 烏磁器 | 『金馬志』, 『土産』. |
| 1780년 | 烏瓷 | 朴趾源, 『燕巖集』, 『熱河日記』, 卷十. |
| 1809년 | 오지 | 방허각 이씨, 『閨閣叢書』, 卷一. |
| 1823년 | 烏器, 烏瓷, 烏瓷器 | 徐有渠,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
| 1834년 | 烏瓷 | 李圭景, 『五洲書種』, 陶窯類. |
| 1839년 이후 | 烏瓷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華東陶窯辨證說』. |
| 1855년 | 烏指器 | 『右捕廳謄錄』, 『右捕廳謄錄』, 第二十九冊, 乙卯(1855)七月二十日. |
| 1891년 | 石間朱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국역 荷齋日記(-)』, 2005. |
| 1909년 | 墨器, 黑磁, 柒(漆)土器 | 農商工部所管, 『官立工業傳習所報告(第一回)』, 1909. |
| 1931년 | 칠기그릇 석간주자기 |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工政會出版部, 1931. |
| 현재 | 黑釉磁, 黑釉, 黑褐釉, 石間朱磁器, 흑유자기 | 진홍섭, 『청자와 백자』,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4. 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2. 문헌기록에 보이는 흑자

흑자가 언급된 조선시대의 기록은 『金馬志』⁹⁾와 『林園經濟志』, 『五洲衍文長箋散稿』·『五洲書種』, 『捕盜廳謄錄』¹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林園經濟志』에, 이규경(李圭景, 1788-?)이 『五洲衍文長箋散稿』·『五洲書種』에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오자의 제작방법, 용도와 생산지를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표 2).

먼저, 제작방법에 있어서 이규경은 “오자도토는 관동 철원부에서 생산되는데 매우 까맣고

⁹⁾ 『금마지』는 1756년에 편찬된 전라도 익산의邑誌이다. 『金馬志』, 『土産』. “竹 鯽魚 薑(竝出地志今人不種薑) 鐵 烏磁器 楮 麻 漆 鵝 天鵝 白魚 秀魚 鯉魚 蟹”.

¹⁰⁾ 『포도청등록』은 좌포청등록과 우포청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우포청등록은 右捕盜廳에서 1807년(순조 7) 1월 ~1881년(고종 18) 11월의 소관 업무를 기록한 책으로, 오자를 판매하는 보부상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있어 소개한다. 우포도청은 한성의 서부·북부와 京畿右道를 관할하였는데 이 책은 각종 사건에 대한 심문, 처리와 관련된 기록이 자세하다.

표 2 오자관련 문헌자료

| 구분 | 관계문헌 |
|---------|--|
| 색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李圭景, 『五洲書種』, 〈陶窯類〉, 烏瓷則或膩黑 如玄玉 或帶黃帶烏不一其類. |
|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南方有烏瓷甕用白土爲坯以石間硃 儉黔水調塗之入窯燻成比陶器最能持久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華東陶窯辨證說」, 我東陶土 在處有之 而有石間朱土 烏瓷土 半蒼半黃陶土 黝黃陶土 黃陶土 灰白陶土 紅黑陶土 烏瓷陶土 關東鐵原府所產 甚烏且膩... |
| 유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南方有烏瓷甕用白土爲坯以石間硃 儉黔水調塗之入窯燻成比陶器最能持久 |
| 가마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我東則不論陶窯窯燻瓶燻缸都是一臥窯 火不炎上必用松肱烈火近火者常患苦窳遠火者又苦不熟 此所以東燻之爲天下之賤工也. |
| 생산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瓶】... 烏瓷者出南中關東 ... 『捕盜廳贈錄』, 「右捕廳贈錄」, 第二十九冊, 乙卯(1855) 七月二十日, 負商罪人 安景甫 供草, ... 文景周段矣身夫婦買得烏指器抱川新店入城於賣 ... 『金馬志』, 「土產」, 竹 鯉魚 薑(出地志今人不種薑)鐵 烏磁器 楮 麻漆 鵝 天鵝 白魚 秀魚 鯉魚 蟹 |
| 기종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高麗圖經』, 卷32, 器皿, 茶俎, ... 金花烏蓋 翡色小甌 皆竊効中國制度 ...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瓶】陶者出處處陶窯 瓷者出廣州官窯 烏瓷者出南中關東 亦有之大小精粗不一 皆廢棧間貯日用酒醬油醋之類者也.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缸】有陶者 有瓷者 有烏瓷 者大小形製不一 用以貯日用油蜜及一切飲料需者也 瓷者或有蓋.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卷一, 초는 장의 버금이니 ... 병일의 정화수 혼동회에 누룩7로 닉 되를 누르게 복가 그 물의 석거 오지항의 너 허든드니 봉하야 두어다가 ... 복성화가디로 저어 듯꺼이 봉하야 향양쳐의 두선 좃가됩니다. 계당 당류슈를 기러 설흔 주발을 곱혀 열주발이 되게 혼후...관계 두양 7로 윈드러 오지병이 크도 작도 옥 하니 물붓기만 혼되 몰아 약죄와 물을 화합하야 붓고 유디로 부리를 들든히 묵는다. ...질병과 사기병은 쓰 디 말어라. |

윤기있다.”¹¹ 고 오자의 원료와 그 산지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며, 서유구는 “남방에서 오자용은 백토로 그릇을 만든 후 석간주로 약간 검은 빛이 나도록 물을 섞어 바른다.”¹² 고 기록하였다. 여기

¹¹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華東陶窯辨證說」, “我東陶土 在處有之 而有石間朱土 烏瓷土 半蒼半黃陶土 黝黃陶土 黃陶土 灰白陶土 紅黑陶土 烏瓷陶土 關東鐵原”所產 甚烏且膩...; 방명신, 『조선 후기 백자 연구』(一志社, 2000), p. 199; 張南原,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古今瓷窯辨證說』과 『華東陶窯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論壇』6 (한국미술연구소, 1998), p. 218.

¹²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南方有烏瓷甕用白土爲坯以石間硃 儉黔水調塗之...”

서 주목할 것은 백토와 석간주로, 오자는 백자의 태토로 쓰인 백토로 제작되었고, 철화백자의 안료로 이용된 석간주를 유약의 원료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오자는 백토나 오자도토로 제작되었으며, 불에 구우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석간주의 성질을 이용하여 검은빛의 유약을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마에 놓고 구워 완성하면 도기에 비해 더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¹³고 전하여 오자를 도기와는 달리 자기처럼 인식했던 것 같다. 살펴본 기록과 같이 도토보다 강도가 높은 백토로 기물을 제작하고 유약을 시유하여 높은 온도에서 번조하니 도기보다 단단하여 더욱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오자는 현옥과 같이 검은 색이며 누런빛을 띠기도 한다.”¹⁴고 하였다. 유색이 흑색 또는 황색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포천 길명리¹⁵와 가평 하판리 가마터¹⁶에서 출토된 흑자편을 살펴본 결과, 문헌 기록과 같이 황색 빛깔부터 흑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약에 포함된 철(Fe₂O₃)의 함유량, 또는 유약의 두께에 따라 나타나는 색깔의 차이를 말하거나 번조 환경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자는 사전적인 의미의 검정색 자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흑자의 용도는 그릇의 쓰임새를 가장 잘 말해주는 기종을 통해 살펴보았다. “항아리는 도기, 자기, 오자기로 된 것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기름과 꿀을 비롯해 모든 음료를 담아두고 사용한다.”¹⁷는 기록과 “병의 경우 도기는 도기가마에서, 자기는 광주 관요에서, 오자는 남중관동에서 나온다. 모두 부엌에 설치된 선반 사이에 두고 술과 장, 기름과 식초를 담아 사용한다.”¹⁸고 서유구는 전한다. 이 기록들을 통해 먼저 오자의 주 생산지로 보이는 남중관동에 주목해 보았다. ‘남중’은 남도와 같은 말로 주로 전라도를 일컬으며, ‘관동’은 강원도 혹은 대관령의 동쪽 지역을 말한다. 관동 지역은 앞서 오자도토의 산지인 철원이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확인된 조선 후기의 흑자 생산지는 순천 건천리와 철원 문혜리가 확인된 바 있다.¹⁹

¹³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入窯燻成比陶器最能持久.”

¹⁴ 李圭景, 『五洲書種』, 「陶窯類」, “...烏瓷則或膩黑如玄玉或帶黃帶烏不一其類...”; 방병선, 앞의 책(2000), p. 201.

¹⁵ 畿甸文化財研究院, 『抱川吉明里黑釉瓷窯址』(2006).

¹⁶ 韓國文化遺產研究院, 『加平下板里窯場』(2010).

¹⁷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缸】有陶者有瓷者有烏瓷者大小形製不一用以貯日用油蜜及一切飲料需者也 瓷者或有蓋.(金華耕讀記)”; 方炳善, 앞의 책(2000), p. 189.

¹⁸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二, “【瓶】陶者出處處陶窯 瓷者出廣州官窯 烏瓷者出南中關東 亦有之大小精粗不一 皆廚牋間貯日用酒醬油醋之類者也.”; 方炳善, 위의 책(2000), p. 188.

¹⁹ 湖南文化財研究院, 『求禮 松亭遺蹟·順天 乾川遺蹟·光陽 福星里遺蹟·光陽 東珠遺蹟』(2009), pp. 249-375; 鐵原郡, 『鐵原郡의 歷史와 文化遺蹟』(1995), pp. 314-315.

이 외에도 『捕盜廳謄錄』, 『右捕廳謄錄』에 “부상 문경주 부부는 포천 신점에서 烏指器(오자)를 사서 (서울에) 입성하여 팔고, 또 아래로 집어 나른다.”²⁰ 는 기록이 전해지는데,²¹ 문헌이 작성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포천 길명리 가마터와 포천 인근의 가평 하판리 가마터가 조사되어 포천 일대에서 흑자 생산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²² 이들 가마터에서도 병과 호가 주로 생산되었는데,²³ 문헌의 내용과 같이 병과 호는 부엌에 설치된 선반에 두고 장·기름·꿀·식초 등의 양념과 술·음료 등을 담아 썼던 것으로 보인다(도 2·3).



도 2 <흑자 일괄>, 포천 길명리 가마터 출토, 경기문화재연구원



도 3 <흑자병 일괄>, 가평 하판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유산연구원

²⁰ 『捕盜廳謄錄』, 『右捕廳謄錄』, 第二十九册, 乙卯(1855) 七月二十日, 負商罪人 安景甫 供草, “... 文景周段矣身” 買得烏指器抱川新店入城於賣 ... 崔億萬段矣身夫婦只以烏指器商爲口矣...”

²¹ 필자는 烏指器를 烏瓷器(烏磁器) 또는 오지그릇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조선에서는 當字(借字)를 사용하는 풍습이 많았고, 음이나 뜻이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글자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지는 烏只·於芝 등으로도 쓰이며, 무늬가 없는 백자의 경우 白磁·白沙器·粉養·白器 등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淺川巧, 앞의 책(1931), pp. 155-158, 171;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심우성 역, 앞의 책(1996), pp. 187-188, 196.

²² 남진주는 포천 길명리 출토 흑자에 대해 많은 양의 사립과 철분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그릇의 깨진 단면을 보면 흑회색이나 흑갈색을 띠어 백토를 사용한 오자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길명리 출토 흑자의 경우 흑갈색 태토를 비롯하여 백토를 사용한 흑자도 함께 생산되었으며, 흑갈색을 띠는 태토 역시 착색제의 함량만 다를 뿐 백자와 조성분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길명리 흑자의 태토에 대해서는 본고의 <III-1. 원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畿甸文化財研究院, 앞의 책(2006), p. 10의 원색사진 참조; 김규호·고민정·송유나·전유리, 『경기도 포천군 길명리 가마터 출토 흑유자와 백자의 과학기술적 분석 고찰』, 『抱川 吉明里 黑釉瓷窯址』(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pp. 255-258; 서지영, 『抱川 吉明里 窯址 出土 磁器의 性格』, 『서울·경기지역 고고학의 최신 연구 성과』(서울경기고고학회, 2008. 5), pp. 82-84, 96-98; 『가평 하판리 웃노채窯場의 조사 성과』, 『2008년도 서울·경기지역 문화유적 조사 성과』(서울경기고고학회, 2008. 12), pp. 229-230; 남진주, 앞의 논문(2010), p. 451.

²³ 포천 길명리 가마터에서 생산된 호와 병은 전체 생산량의 약 73.2%이며,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생산된 호와 병 역시 약 92%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畿甸文化財研究院, 앞의 책(2006), p. 141; 韓國文化遺産研究院, 앞의 책(2010), p. 216.

한편, 실생활에서 오자가 도기나 백자와 구분되어 사용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즉, 빙허각 이씨의 『閨閣叢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²⁴ 보통 『규합총서』에 기록된 기물은 기종만 언급될 뿐 그릇의 재질을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가운데, 醋와 桂漿을 담을 때에는 오자를 언급하는 것,²⁵ 특히 “계장을 담을 때에는 도기병과 사기병은 쓰지 말라.”²⁶는 부분에서 오자의 특별한 쓰임새를 짐작하게 한다. 계장은 계피가루와 약재를 넣어 만든 건강음료이다. 굳이 오자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백자에 계피의 붉은 물이 드는 것을 방지하거나, 질그릇에 담을 경우 계피의 향이 쉽게 사라지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러한 오자의 사용 예는 빙허각 이씨의 경험에 의해 전해져 명쾌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도기나 백자와는 다른 오자의 용도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Ⅲ. 흑자의 제작양상

가마터에서 출토된 흑자를 대상으로 원료의 성분과 생산지, 기종과 기형, 방법으로 나누어 조선시대 흑자의 제작양상을 살펴보겠다.

1. 원료

조선시대 흑자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회백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에 갈색 또는 흑색계열의 유약을 시유한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백색 태토는 백자, 회색 태토는 청자와 분청사기로 인식하

²⁴ 빙허각 이씨(1759~1824)가 51세(1809년)때 저술한 『규합총서』는 조선시대 부녀자들을 위한 가정살림의 지침이 되는 일을 기록한 책으로, 당시 부녀자들을 위한 조선시대 가정백과 사전으로 일컬어진다. 남편 서유본, 시숙 서유구와 함께 실학자인 박지원, 정약용 등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실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학풍은 생활의 실용적인 내용을 우리글로 담은 규합총서의 저술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閨閣叢書』影印本(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pp. 61-62; 憑虛閣 李氏, 李慶善 역, 『閨閣叢書』—家庭百科의 古典—(新丘文化史, 1974), p. 24.

²⁵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卷一. “초는 장의 버금이니 ... 병일의 경화수 혼동희에 누룩으로 닉 되를 누루게 복가 그 물의 석거 오지항의 너허 든둔니 봉항야 두어다가 ... 복성화가디로 저어 듯끼이 봉항야 향양처의 두션 좃가 됩니라”

²⁶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卷一. “계당 당류슈를 기러 싯흔 주발을 끓혀 열주발이 되게 혼후...관계 두양으로 윈드러 오지병이 크도 작도 흑니 물붓기만 혼되 물이 약죄와 물을 화합항야 붓고 유디로 부리를 든듯히 묵는다. ...질병과 사기 병은 쓰디 말어라.”

²⁷ 분석 데이터는 두 가마터의 보고서에 실린 과학기술적 분석 연구에 의거한 것임을 밝히며, (표 4·5)에 제시한 분석 값

여 분류되었는데, 흑자는 양자 모두 확인 된다. 흑자의 원료 성분이 분청사기·백자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점은 없는지, 도자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화학적 분석을 토대로 태토와 유약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조선 전기에 흑자와 함께 분청사기가 제작된 웅천 두동리 가마터와 조선 후기에 흑자와 백자가 제작된 포천 길명리 가마터 출토품을 선정하였다.²⁷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안으로 관찰할 때 두동리 출토 흑자의 태토는 분청사기의 태토와 유사하며, 길명리 흑자는 백자의 태토와 유사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길명리의 경우는 회흑색을 띠는 태토와 백색을 띠는 태토가 확인되어 이를 각각 흑자(1), (2)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4〉를 보면, 두동리의 흑자원료의 각 성분은 분청사기와 유사한 함량을 보인다. 원료를 분석하여 유약 조성과 성질을 시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제게르 식

표 3 흑자와 분청사기·백자의 원료 성분 분석 대상

| 가마터 | 종류 | 가시적 특징 | | | | 비고 |
|---------------------|------|----------------------|-----------------|------------------|-------|---------|
| | | 태토 | | 유약 | | |
| | | 색 | 치밀도 | 색 | 병렬 | |
| 웅천 두동리 (15~16세기) | 흑자 | 회흑색 | 비교적 치밀 일부 거침 | 흑색 녹흑색 | ○ | |
| | 분청사기 | 회흑색 회색 | 비교적 치밀 일부 거침 | 회색 녹회색 회갈색 | ○ / × | |
| 포천 길명리 (19세기) | 흑자 | 회흑색 (1) 흑갈색 회색 | 비교적 치밀 | 흑갈색 | ○ | 유약 흘러내림 |
| | | (2) 회백색 | 비교적 치밀 | 흑갈색 갈색 | ○ | 유약 흘러내림 |
| | 백자 | 회백색 밝은 회백색 | 치밀 비교적 치밀 | 밝은 회백색 회색 | ○ | |

은 평균값을 발췌하였다. 김규호·고민정·송유나·이영은·고경신, 「진해시 웅천 도요지 출토 도자기의 과학기술적 분석 연구」, 『鎭海 熊川陶窯址』Ⅱ(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 pp. 359-411; 김규호·고민정·송유나·전유리, 앞의 논문(2006), pp. 233-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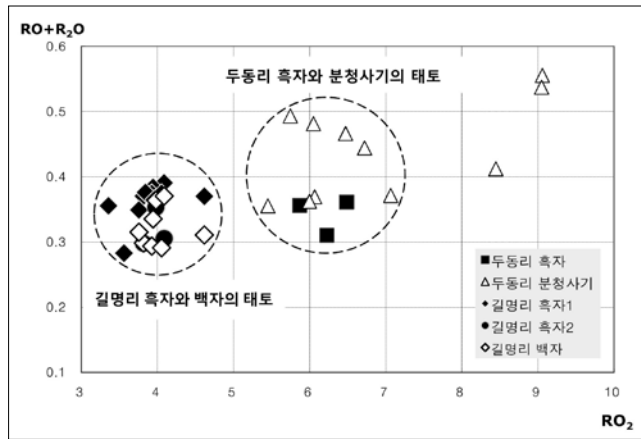
²⁸ 제게르 식은 $R_2O+RO : R_2O_3 : RO_2$ 를 기본 형식으로 하며 도자기 원료를 고온에서의 성질에 따라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구분한다. 염기성은 R_2O+RO 로 표시되는 $Na_2O, K_2O, CaO, MgO, MnO$ 성분으로 용제작용을 하며 중성은 R_2O_3 로 Al_2O_3 와 Fe_2O_3 성분으로 가소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RO_2 로 표현되는 산성은 SiO_2, TiO_2, P_2O_5 성분들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에서 태토는 각각 중성성분에 대한 몰(mole)의 함을 1로 기준하고 계산된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몰 비에 따라 비교하여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다. 김규호·고민정·송유나·전유리, 위의 논문(2006), p. 240.

표 4 가마터 출토 자기 태토의 성분 분석표 (단위: wt%)

| 가마터 | 종류 | SiO ₂ | Al ₂ O ₃ | Fe ₂ O ₃ | MgO | CaO | Na ₂ O | K ₂ O | TiO ₂ | P ₂ O ₅ | MnO | Total |
|-----------|-------|------------------|--------------------------------|--------------------------------|------|------|-------------------|------------------|------------------|-------------------------------|------|-------|
| 용천 | 흑자 | 71.5 | 17.5 | 3.5 | 0.53 | 0.57 | 1.0 | 2.4 | 0.77 | 0.03 | 0.10 | 97.8 |
| 두동리 | 분청사기 | 71.37 | 18.20 | 2.30 | 0.47 | 0.52 | 1.75 | 2.55 | 0.88 | 0.03 | 0.06 | 98.95 |
| 포천 길명리 | 흑자(1) | 63.1 | 24.9 | 4.3 | 0.99 | 0.44 | 1.8 | 3.3 | 0.50 | 0.04 | 0.09 | 99.5 |
| | 흑자(2) | 61.4 | 28.8 | 2.8 | 0.53 | 0.46 | 2.3 | 3.3 | 0.19 | 0.04 | 0.06 | 99.9 |
| | 백자 | 64.1 | 26.2 | 2.5 | 0.53 | 0.41 | 2.2 | 3.7 | 0.17 | 0.05 | 0.07 | 99.4 |

(Seeger equation)²⁸에 의해 특성을 분류 한 결과, 흑자는 분청사기와 일정한 범위에서 확인됨을 알 수 있다(도 4). 다시 말해서, 두동리의 흑자는 분청사기와 유사한 원료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길명리 역시 (표 4)와 (도 4)을 통해 흑자(1)과 (2)의 태토는 모두 백자의 태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흑자를 자기질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²⁹

반면, 유약은 두동리나 길명리 모두 함께 제작된 자기의 원료와 다르게 나타난다(도 5). 가장 큰 차이점은 철과 티타늄, 망간의 함량이 분청사기나 백자에 비해 흑자에서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유색은 특히 철에 의한 색상 변화가 주로 이루어지는데,³⁰ (표 5)에서도 흑자가 분청사기보다 산화철(Fe₂O₃), 산화티타늄(TiO₂), 산화망간(MnO)이 2-4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분청사기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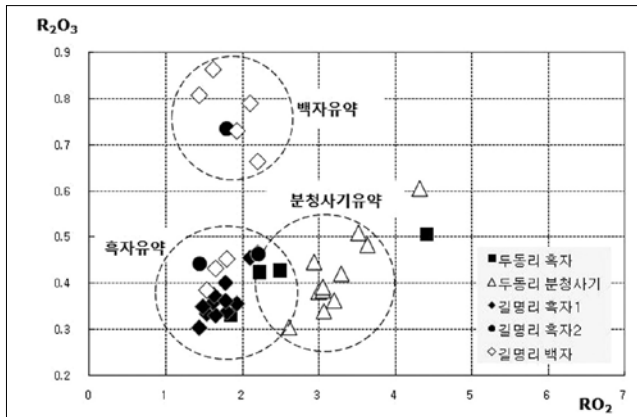
도 4 진해 두동리와 포천 길명리 자기의 태토 조성 분포도

²⁹ 다만, 모든 흑자가 자기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확인한 가마터 출토 흑자 가운데 분청사기나 백자와 함께 제작된 곳에서는 대체로 자기질의 태토를 사용한 반면, 흑자만 확인된 곳 중에는 태토가 정선되지 않고 사립이 많아 자기질로 보기 어려운 예도 있었다. 추후 일률적으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³⁰ 熊海堂은 배합한 재료 가운데 철분이 많으면 태토의 색조가 어둡기 때문에 백자원료의 가공 주요 목적이 원료 가운데 철분을 철저히 제거하는 일이며, 철의 함량이 많고 적음이 磁土가 격의 주된 지표라 언급하였다. 熊海堂,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南京大學出版社, 1995), pp. 216-217.

표 5 가마터 출토 자기유약의 성분 분석표(단위: wt%)

| 가마터 | 종류 | SiO ₂ | Al ₂ O ₃ | Fe ₂ O ₃ | MgO | CaO | Na ₂ O | K ₂ O | TiO ₂ | P ₂ O ₅ | MnO | Total |
|-----------|-------|------------------|--------------------------------|--------------------------------|------|-------|-------------------|------------------|------------------|-------------------------------|------|-------|
| 웅천 두동리 | 흑자 | 53.7 | 16.4 | 5.5 | 3.1 | 15.9 | 1.4 | 2.8 | 0.84 | 1.1 | 0.42 | 101.1 |
| | 분청사기 | 63.83 | 14.07 | 2.03 | 1.97 | 13.07 | 1.40 | 2.57 | 0.25 | 0.71 | 0.36 | 100.2 |
| 포천 길명리 | 흑자(1) | 49.3 | 13.7 | 6.9 | 3.6 | 18.6 | 1.7 | 2.5 | 0.47 | 2.3 | 0.9 | 100.1 |
| | 흑자(2) | 50.3 | 16.7 | 7.2 | 3.1 | 13.5 | 2.2 | 2.8 | 0.42 | 2.3 | 0.72 | 99.3 |
| | 백자 | 65.8 | 16.7 | 1.2 | 2.9 | 8.6 | 1.5 | 3.3 | 0.04 | 0.18 | 0.08 | 100.1 |



도 5 진해 두동리와 포천 길명리 자기의 유약 조성 분포도

약 보다 어두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흑자가 백자보다 약 7배 더 함유된 철과 4배 많은 티타늄, 9배 정도 더 많은 망간의 함유율로 인하여 흑자의 유색이 백자와는 달리 검게 발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분석대상 흑자와 분청사기·백자의 원료 성분을 비교해 본 결과, 태토는

대체로 함께 제작된 자기와 원료가 유사했으며, 유약은 흑자에 착색제로 사용되는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성분 함유량 차이로 인해 분청사기나 백자와 유색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분청사기의 경우 산화철 함량은 평균 2% 내외이며, 백자는 1% 내외인데 대체로 조선시대 흑자는 5~8% 내외 함유하고 있어 담갈색-흑갈색조를 나타내게 된다.

2. 생산지

현재까지 발견된 흑자 가마터는 총 41곳이며, 그 중 지표조사된 흑자 가마터는 총 29곳, 시

³¹ 가마터 조사 현황은 野守健, 『鷄龍山麓陶窯址調查報告』(朝鮮總督府, 1929); 國立光州博物館, 『全南地方 陶窯址 調查報告』II(1988); 忠北大學校博物館,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查報告書』(1993); 鐵原郡, 앞의 책(1995), pp. 314-315; 한신대학교박물관 외, 『용인의 도요지』(1999);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 廣州 中央官窯』(1999) 解説篇(2000); 慶南開發研究院, 『鎭海 熊川 磁器窯址(1)-鎭海市 熊東面 頭洞里 熊川磁器窯址 試掘調査略報告書』(2001);

굴조사는 1곳, 발굴조사 된 곳은 11곳이다.³¹ 이처럼 흑자 생산지는 대다수가 유적의 지표면에 흩어진 유물을 수습하여 정리·보고하는 지표조사가 주로 진행되었다. 지표조사는 조사 성격상 주된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흑자 생산지를 살펴보면, 흑자만을 단독으로 생산하는 가마터 보다는 분청사기나 백자와 함께 제작된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분청사기나 백자의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던 조선시대 가마터 가운데 흑자가 출토된 가마터를 선별하여 지역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헌에 흑자의 생산지로 언급되었던 전라도 지역은 고창 용산리와 순천 건천리를 비롯하여 13곳의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철원 문혜리와 원주 비두리에서 확인되었다. 그 외에 경기도는 광주를 비롯하여 포천·용인지역에서 총 18곳의 흑자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충청도와 경상도는 각각 4곳이 조사되어 각 도에서 골고루 흑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총 41곳으로 확인된 흑자 가마터의 수만 보면,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에 가마터가 밀집한 것으로 보이고, 경상도와 강원도에서는 흑자 생산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이 같은 빈도로 조사된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조사량이 많은 순으로 흑자의 생산지의 수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 각 지역에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흑자 가마터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한다. 흑자 가마터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5-16세기는 10곳, 17-18세기는 7곳, 19세기 이후에는 24곳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흑자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제작되었으며 19세기 이후의 가마 수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발굴 조사되어 출토품의 양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11곳을 기준으로 흑자를 3개의 群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각 가마터에서 대표성을 띠며 중점 생산된 자기와 가마터 내

全南文化財研究院, 『長興 朝鮮白磁 陶窯址』(200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丹陽 傍谷里 陶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2002); 慶南開發研究院, 『鎭海 熊川陶窯址』II(2004); 국립진주박물관,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2004); 김남돈, 『원주 비두리 도요지』, 『박물관지』8(강원대학교박물관, 2004); 湖南文化財研究院, 『高敞 龍山里 窯址』(2004); 『高敞 龍溪里 遺蹟』, 『金堤 大東里 遺蹟』(2004); 한림대학교박물관, 『원주 귀래2리 백자가마터』(2004); 全南文化財研究院, 『谷城 龜城里 陶窯址』(2005); 中央文化財研究院, 『忠州 九龍里 白磁窯址』(2005); 畿甸文化財研究院, 앞의 책(2006); 湖南文化財研究院, 『長成 鷲岩里 窯址』(2006);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도요지 지표조사』I(2007);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2008); 湖南文化財研究院, 앞의 책(2009), pp. 249-37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蔚山 대밀·兩水亭·上三亭·三亭里遺蹟』(2008); 경기도박물관, 『임진강』경기지역문화특별전 2(2009); 韓國文化遺産研究院, 앞의 책(2010)을 참조하였다. 또한 이들 자료를 기초로 <표 6·7>을 작성하였다.

³² 각 가마터 출토 자기의 생산량과 비율은 각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³³ B 군에서 16세기 중반-17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이는 흑자 생산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27-1636)의 영향으로 가마터가 파괴되는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며, 지표조사의 한계로 시기설정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흑자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에서 흑자의 생산비율로 살펴보았다.³² 그 결과 분청사기 가마에서 제작된 흑자유형(A 群), 백자 가마에서 제작된 흑자유형(B 群), 흑자 가마에서 제작된 유형(C 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가마터의 운영 시기는 A 군의 경우 15-16세기에, B 군의 경우 16세기부터 나타나 19세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인되며,³³ C 군은 19세기에 집중해서 나타난다(표 7).

표 6 흑자가마터의 시기 및 지역별 분류

| 시기 | 가마터 | | | | |
|---------|--|--------|----------------------|---|-----------------------|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 15-16세기 | 광주 귀여리 11호 | - | 공주 학봉리* | 곡성 구성리* 고창 용산리* 고창 용계리* 장성 추암리* 담양 행성리 담양 대방리 장성 진원리 2호 | 진해 두동리* |
| 17-18세기 | - | 원주 비두리 | 단양 방곡리 5호 | 담양 용연리 1·3·4호 담양 용치리 | 울산 상삼정리* |
| 19세기 이후 | 포천 화현리* 포천 길명리* 가평 하판리* 용인 서리 5호 용인 신봉리 1호 용인 목리 2호 용인 지곡리 1·2호 포천 화대리 5호 포천 유동리 포천 도평리 연천 도신리 연천 고릉리 양주 교현리 | 철원 문혜리 | 충주 구룡리* 괴산 관평리 1호 | 순천 건천리* 장흥 학송리 | 산청 윤리 5호 사천 은사리 4호 |

*'표는 발굴 조사된 가마터이다.

표 7 흑자의 유형과 제작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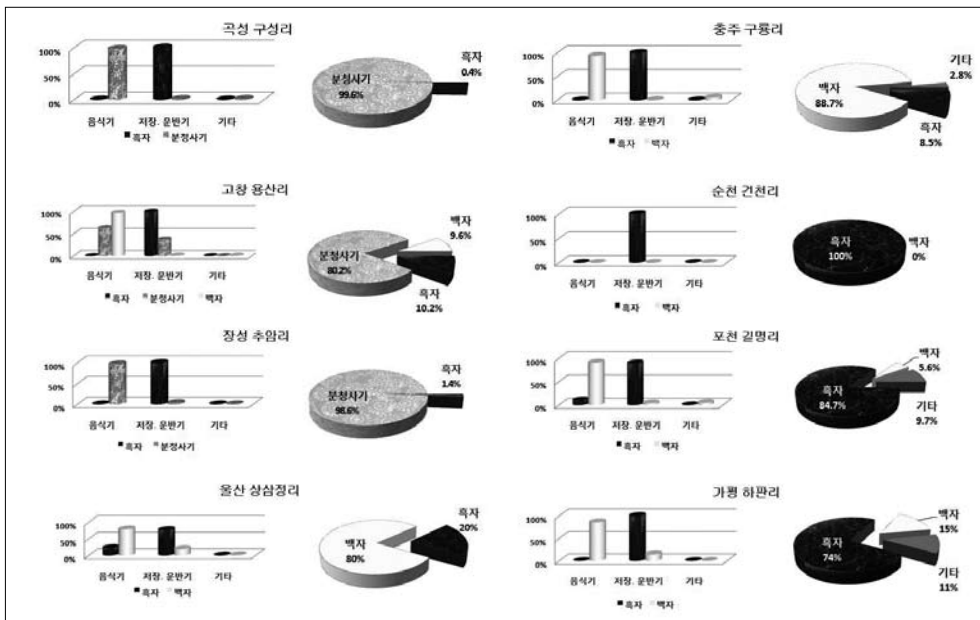
| 群 | 중심유물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
| A | 분청사기 | ■ | ■ | | | | |
| B | 백자 | | | | ■ | ■ | |
| C | 흑자 | | | | | ■ | ■ |

3. 기종과 기형

앞서 세 유형으로 분류한 가마들 중에서 발굴 조사된 가마터를 중심으로 생산 기종과 제 작비율을 검토하여 흑자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³⁴ 또한 모든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는 병과 호를 중심으로 흑자의 기형을 살펴보아 조선시대 흑자의 성격을 살피는 데 있어 기 초로 삼고자 한다.

1) 기종

흑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서는 가마터에서 어떤 기종들이 생산되었 으며, 전체 생산량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발 굴 조사된 가마터를 중심으로 흑자의 기종과 출토율을 분석한 뒤(도 6),³⁵ 함께 생산된 분청사기·



도 6 가마터 출토 흑자의 용도와 출토량(%)

³⁴ 발굴 조사된 가마터 가운데, 포천 화현리 요지는 발굴 보고서에 흑자에 대한 언급만 있기에 기종과 기형의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³⁵ 본 논고에서는 직접 음식을 담아 먹는 발·대접, 중자·잔, 접시 등을 ‘음식기’로, 음식을 상에 올리기 이전에 담아두거나 운반을 할 때 사용하는 호·병·주자·주구발·뚜껑·대발 등을 ‘저장·운반기’로 명명하였다.

표 8 가마터 출토 자기의 기종

| 群 | 가마터 | 시기 | 종류 | 음식기 | | | 저장·운반기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발·대접 | 잔·중자 | 접시 | 병 | | | | 호 | 뚜껑 | 주자 | 주구발 | 대발 | | | | | | |
| | | | | | | | 매병 | 편병 | 유병 | 주병 | | | | | | | | | | | |
| A | 곡성 구성리 | 15C 전반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청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주 학봉리 | 15-16C 전반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청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진해 두동리 | 15C 후반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청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창 용산리 | 15C 중반-16C 전반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청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창 용계리 | 15C 중반-16C 전반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분청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성 추암리 | 16C 전반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청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울산 상삼정리 | 18C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주 구룡리 | 19C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순천 건천리 | 18-19C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천 길명리 | 19C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가평 하판리 | 19C | 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표 8·9).³⁶

먼저 A 군의 고창 용산리, 장성 추암리, 진해 두동리, 공주 학봉리 가마터는 분청사기를 주로 생산하고, 소량의 흑자와 백자가 함께 제작되었다. 생산된 자기의 기종을 살펴보면, 대체로 분청사기는 발·대접, 종자·잔, 접시, 호, 병, 주자, 주구발, 뚜껑, 대발 등 음식기와 저장·운반기 모두 확인되는 반면, 흑자는 진해 두동리에서 단 한 점의 잔이 출토된 것 외에는 음식기가 출토되지 않았고, 병과 호를 중심으로 한 저장·운반기에서 보인다(도 7). 그에 반해 백자는 대체로 분청사기와 같이 음식기와 저장·운반기 모두 확인되었다.

이를 각각 상대적인 출토 비율로 보면 분청사기와 백자는 생산량의 80% 이상이 발과 접시 등의 음식기 위주로 생산된 반면, 흑자는 병과 호 등의 저장·운반기 위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가마터 출토 자기의 용도별 출토비율(%)

| 가마터 | 종류 | 용도 | | |
|---------|------|------|--------|------|
| | | 음식기 | 저장·운반기 | 기타 |
| 곡성 구성리 | 흑자 | 0 | 100 | 0 |
| | 분청사기 | 97.5 | 1.2 | 1.3 |
| 고창 용산리 | 흑자 | 0 | 100 | 0 |
| | 분청사기 | 62.9 | 37 | 0 |
| | 백자 | 97.4 | 1.4 | 1.1 |
| 장성 추암리 | 흑자 | 0 | 100 | 0 |
| | 분청사기 | 96.7 | 3.3 | 0 |
| 울산 삼삼정리 | 흑자 | 23 | 77 | 0 |
| | 백자 | 79 | 20 | 1 |
| 충주 구룡리 | 흑자 | 0 | 100 | 0 |
| | 백자 | 93.8 | 0.6 | 5.4 |
| 순천 진천리 | 흑자 | 0 | 100 | 0 |
| | 백자 | 0 | 0 | 0 |
| 포천 길명리 | 흑자 | 10.2 | 89.8 | 0 |
| | 백자 | 91 | 4 | 5 |
| 가평 하판리 | 흑자 | 0 | 100 | 0 |
| | 백자 | 85.5 | 14.4 | 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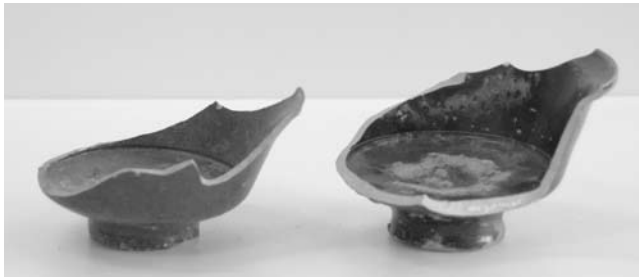
³⁶ 출토 빈도, 즉 점유율(%) 분석은 보고서에서 통계자료로 삼은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유적의 보고자 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수량이 많은 음식기류는 도상복원이 가능한 것, 굽이나 기측면에 표식이 있거나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것이 선별되었고, 병이나 호 등 수량이 적은 기종은 개체수의 파악을 위하여 1/2이상 남아 있는 것과 특수한 문양이 시문된 것 등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도 7 <흑자병 일괄>, 고창 용산리
가마터 출토, 호남문화재연구원



도 8 <흑자병 일괄>, 울산 상삼정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도 9 <흑자발>, 左 높이 84cm, 구경 16.5cm, 저경 6cm, 右 높이 98cm,
구경 16.6cm, 저경 6.4cm, 울산 상삼정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도 10 <흑자접시>, 높이 5cm,
구경 15cm, 저경 6.2cm,
울산 상삼정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다음으로 B 군의 울산 상삼정리와 충주 구룡리 가마터를 보면, 백자 중심으로 생산하고 소량의 흑자를 함께 생산하였다. 백자는 발·대접, 종자·잔, 접시 등 음식기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저장·운반기로는 병, 주구발, 뚜껑만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흑자는 병과 호를 중심으로 한 저장·운반기가 주로 확인되었고(도 8), 울산 상삼정리의 경우는 음식기인 <흑자발>(도 9)과 <흑자접시>(도 10)도 소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상대적인 출토 비율로 보면, 상삼정리의 경우 백자는 생산량의 80% 내외가 음식기에, 흑자는 80% 내외가 저장·운반기에 치중되어 그릇의 쓰임새가 명확히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구룡리 출토 자기 역시 백자는 90% 이상 음식기로, 흑자는 저장·운반기로만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C 군은 순천 건천리, 포천 길명리,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살필 수 있다. 순천 건천리 가마터는 흑자만 단독으로 제작하였으며, 포천 길명리와 가평 하판리의 경우는 흑자와 함께 백자가 생산되었는데 전체 생산량이 백자 보다 흑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가마터 출토 기종은 병과 호·뚜껑·주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형의 저장·운반 용기가 주종을 이



도 11 <흑자 일괄>, 가평 하판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루며(도 11), 소량 생산된 백자는 음식기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출토 비율을 보면 모두 흑자는 저장·운반기에, 백자는 음식기에 치중되어 제작된 양상이다.

이처럼 세 유형별 흑자의 기종을 분석한 결과, 흑자는 저장·운반기로서의 기능이 부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로 음식기로 제작된 분청사기·백자와 쓰임이 확연히 구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흑자가 저장·운반용의 그릇으로 많이 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문헌기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오자는 술과 장, 기름과 식초, 꿀 등을 담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용도임을 확인한 바 있다. 문헌이 작성된 19세기에는 발효·저장 음식이 발달하였는데,³⁷ 농·어업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재료로 조리법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저장용의 자기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곡물의 재배량이 증가되면서 주류문화도 발달되어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호와 병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나 병은 물론 注口가 부착된 주구발과 주자가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는 것도 음식을 보관하고 옮기는 용도로 이용되면서 모양과 크기를 구분하여 대량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기형

분석 대상의 유물이 편년작이 없는 것은 물론, 시기나 지역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적어 조형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흑자의 형태가 동시기에 같은 가마에서 제작된 다

³⁷ 조선후기의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하순용, 「古書에 담긴 韓國飲食에 관한 一研究」, 『詳明大學校論文集』 2(詳明大學校, 1972); 金希善, 「朝鮮後期 社會·經濟的變動이 食生活에 미친 影響」(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1987); 이철호·안보선, 「김치에 관한 문헌적 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韓國食生活文化學會, 1995); 김기숙 외,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채소 및 과일류의 저장법과 조리법에 관한 고찰」, 『生活科學論集』 12(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9); 李垠焄, 「朝鮮後期 食器 및 飲食의 特色과 變化」(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2003); 김미희 외, 「〈규합총서〉에 나타난 농산물 이용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김성미·이춘자, 「〈중보산림경제〉의 장류(醬類) 조리 가공에 관한 연구」,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4); 김희선, 「어업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본 음식디미방과 규합총서 속의 어패류 이용 양상의 비교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韓國食生活文化學會, 2004).

표 10 가마터 출토 흑자병의 기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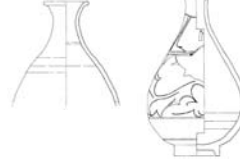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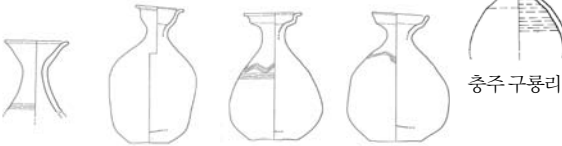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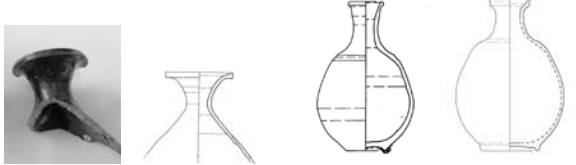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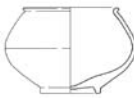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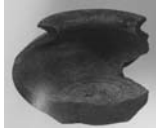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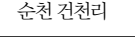
| 분류 | 흑자병 | 분청사기·백자병 |
|----|--|--|
| A群 |   <p>고창 용산리 진해 두동리 공주 학봉리</p> |   <p>장성 추암리 분청사기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p> |
| B群 |   <p>울산 상삼정리 충주 구룡리</p> |   <p>울산 상삼정리 백자 충주 구룡리 백자</p> |
| C群 |   <p>순천 건천리 포천 길명리 가평 하판리</p> | <p>없음</p> |

표 11 가마터 출토 흑자호의 기형 비교

| 분류 | 흑자호 | | | 분청사기·백자호 | |
|----|--|--|--|--|--|
| A群 |   고창 용산리 |   공주 학봉리 |   장성 추암리 |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 |
| B群 |   울산 상삼정리 |   울산 상삼정리 |   울산 상삼정리 |   울산 상삼정리 백자 | |
| C群 |   포천 길명리 |   포천 길명리 |   포천 길명리 | 없음 | |
| |   가평 하판리 |   순천 건천리 | | | |



도 12 <흑자병>, 높이 32.7cm,
구경 6.4cm, 저경 8.2cm,
고창 용산리 가마터 출토,
호남문화재연구원



도 13 <흑자호>, 높이 10cm,
구경 11.1cm, 저경 7cm,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
호남문화재연구원



도 14 左<백자병>, 높이 16.8cm,
구경 6.8cm, 저경 5.8cm,
右 <흑자병> 높이 15.5cm,
구경 6.8cm, 저경 6.2cm,
울산 상삼정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도 15 <흑자병>, 높이 18.5cm, 구경 6.5cm,
저경 5.3cm, 울산 상삼정리 가
마터 출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도 16 <흑자호 일괄>, 울산 상삼정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른 자기들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표 10·11>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병을 살펴보면, A 군의 흑자병 기형은 함께 생산된 분청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팔형의 구연과 동체 저부에 무게 중심을 이루며 곡면을 이루는 형태의 병의 형태가 함께 제작된 분청사기와 매우 유사하다(도 12). 호의 경우도 모두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동체 중앙 부분에서 최대경을 이루는 형태로, 역시 분청사기호의 기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도 13).

B 군의 흑자병은 백자와 같이 반구형의 구연에 동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도 14), 목이 짧고 잘록하며 구연은 밖으로 활짝 벌어진 형태도 확인된다. 또한 반구형의 구연에 전이 달려있고 경부와 구연이 이어지는 곳이 곡면으로 부드럽게 단이 지는 형태가 흑자에서만 확인된다(도 15). 흑자호는 구연이 직립 또는 외반하고 어깨에서 한번 꺾여 저부에 이어지는 형태로 대·중·소형으로 나타난다(도 16). 소형은 백자에서도 보이지만 중·대형의 호는 흑자에서만



도 17 <흑자호>, 높이 9.8cm,
구경 9.3cm, 저경 7.2cm,
충주 구룡리 가마터 출토, 중앙
문화재연구원



도 18 <흑자병 일괄>,
포천 길명리 가마터 출토,
경기문화재연구원



도 19 <흑자호 일괄>, 포천 길명리 가마터 출토, 경기문화재연구원



도 20 <흑자호> 잔존높이 9.8cm,
구경 13.8cm, 포천 길명리 가마
터 출토, 경기문화재연구원



도 21 <흑자호>, 잔존높이 11cm,
구경 10.2cm,
가평 하판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도 22 <흑자호>, 높이 9cm,
구경 10.2cm, 저경 12cm,
순천 건천리 가마터 출토,
호남문화재연구원

보인다. 그리고 구룡리에서
는 구연이 내만하고 어깨 부
분에 양감이 있는 <흑자호>(도 17)가 출토되었다.

C 군의 흑자병은 길명리
나 하판리, 건천리 모두 반구
형 구연이 확인되는데, 백자
에서는 보이지 않은 나팔형

구연의 병도 출토되었다(도 18). 흑자호는 구연이 직립하고 옥연형을 이루거나 내만하고, 어깨부
분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저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띤다. 크기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다
양하게 제작되었다(도 19). 백자의 경우 길명리에서 소호만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흑자와 비슷한
형태이며, 하판리와 건천리에서 백자호는 출토되지 않았다. 구연이 내만하고 어깨 부분에 양감
이 있는 기형은 하판리와 길명리에서 출토되었는데, 동체에 손잡이가 있는 <흑자호>(도 20)는 길









명리에서만 출토되었으며, 구연이 전을 이루고 어깨와 동체 하단에 각이 진 <흑자호>(도 21)는 하판리에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건천리에서는 도기의 기형과 유사한 <흑자호>(도 22)가 제작되었는데,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고 두툼하며 동체는 원통형으로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저부의 등근 판을 만든 후 동체는 테 쌓기하여 형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³⁸

흑자병과 호의 기형을 살펴본 결과, A 군 가마터 출토품은 대체로 분청사기의 범주 내에서 흑자의 기형이 확인되는 반면, B·C 군의 흑자는 백자 기형과 유사성도 있으나, 백자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기형도 다양하게 보인다. 흑자가 저장·운반용기로서는 백자보다 넓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4. 변법

흑자의 변조방법을 분청사기·백자와 비교하여 흑자가 다른 자기와 동시에 변조되었는지, 초벌 후 재벌의 과정을 거쳤는지, 변조 받침의 양상은 어떠한지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12).

표 12 흑자의 변조방법

| 구분 | A 군 | B 군 | C 군 |
|------|--|---|--|
| 동시변조 |  흑자와 분청사기 고창 용산리 |  흑자와 백자 울산 삼삼정리 |  흑자와 백자 가평 하판리 |
| 초벌구이 |  고창 용산리 |  울산 삼삼정리 |  순천 건천리 |
| 변조받침 |  태토 빚음 고창 용산리 |  모래 울산 삼삼정리 |  모래 포천 길명리 |

³⁸ 보고서에는 성형 방법과 기형이 옹기와 유사성이 있어 '흑유옹기'로 분류되었지만, 필자는 초벌 변조 후 유약을 시유하는 제작 방법에 중점을 두어 자기로 보았다. 호남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09), pp. 267, 282.

A 군의 진해 두동리나 고창 용산리 가마터에서는 흑자에 분청사기편이 붙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B 군의 울산 상삼정리에서는 흑자를 백자편 위에 올려 구운 예나 C 군의 가평 하판리에서 흑자와 백자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흑자는 동시기의 분청사기나 백자와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번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흑자의 초벌편도 확인된 바 있어 단순히 이들 자기를 함께 구웠다는 현상보다 태토의 자화되는 온도나, 유약이 유리질화 되는 온도 등 가마에서 번조되는 조건이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원료의 성분 분석 결과와 더불어 흑자를 자기질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IV. 흑자의 제작 시기별 특징

조선시대 흑자의 양식변천은 제작양상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³⁹ 지금까지 살펴본 원료, 기종과 기형, 번법을 종합하여 흑자의 제작 시기별 특징을 제시하겠다.

1. I기(15-16세기)

I기는 분청사기, 백자와 함께 조선 흑자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I기에 해당하는 흑자는 분청사기 가마에서 제작된 흑자유형(A 群)이며, 대체로 분청사기 제작에서 백자 제작으로 이행되는 가마에서 보인다. 백자 가마터는 유일하게 광주 귀여리 11호에서만 확인되었다.⁴⁰ 그 가운데, 곡성 구성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흑자는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內膽’·‘長興’과 같은 명문 분청사기와 함께 출토되어 1403년-1432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¹ 이후에 흑자는 주로 철화·귀얄·덤병 분청사기 및 백자와 함께 제작되었으며, 저장·운반용인 병과 호의 기종에서 주로 확인된다. 병의 기형은 나팔형의 구연과 동체 저부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곡면을 이루는 형태(도 12)가 주를 이루며, 호의 기형은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동체 중앙 부분에서 최대경을 이루는 형태(도 13)가 주를 이루어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의 기형을 따르

³⁹ 조선시대 흑자는 정확한 편년 추정이 가능한 유물이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흑자와 동반 출토된 분청사기와 백자를 기준으로 양식변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⁴⁰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앞의 책(2000), pp. 293-294.

⁴¹ 全南文化財研究院, 앞의 책(2005); 姜敬淑,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시공사, 2005), pp. 361-371.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기의 흑자는 분청사기와 유사한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분청사기와 함께 변조되었다.

이처럼 I기의 흑자는 원료, 기형, 번법이 동시기의 주류인 분청사기와 상당부분 같은 성격을 띠지만, 그릇의 용도에 있어서는 저장·운반에 중점을 두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II기(17-18세기)

II기의 흑자는 I기와는 달리 시대의 큰 흐름을 따라 백자와 함께 제작되며, 원료와 기종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II기에 해당하는 흑자는 백자 가마에서 제작된 흑자유형(B 群)이며, 대표적인 가마터는 울산 상삼정리이다. 백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흑자는 I기의 흑자가 분청사기 태토로 제작된 것과는 달리 백토로 제작되고, 백자 가마에서 변조되는 등 흑자의 제작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보인다.

또한 I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음식기명이 제작되어 기종이 다양해지고(도 9·10), 이전까지 저장·운반용으로만 사용되었던 흑자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토비중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그릇의 기능에 있어서 음식기 위주의 백자와 구분되어 I기에 이어 저장·운반기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II기의 흑자병의 기형은 백자와 같이 반구형 구연에 동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가 하면(도 14), 구연은 전을 이루며 목 부분과 구연이 이어지는 곳에 곡면으로 단이진 형태가 흑자에서만 확인된다(도 15). 호는 대·중·소형으로 나타나는데, 소형은 백자와 함께 보이는 반면, 중·대형의 호는 흑자에서만 확인된다. 기형은 구연이 외반하고, 어깨에서 한번 꺾여 저부로 이어지고, 굽을 따로 깎지 않은 형태이다(도 16).

이처럼 II기의 흑자는 원료와 번법은 백자와 같은 성격이며, 기종을 통해 알아본 흑자의 용도는 저장·운반용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발과 접시 등 음식기도 소량 제작되어 I기에 비해 쓰임새가 다양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3. III기(19세기 이후)

III기의 흑자는 II기에 이어 백자 가마터에서 제작되기도 하지만, 흑자만을 단독으로 생산하는 가마도 보이고, 대체로 백자와 함께 제작되는 경우에 흑자의 출토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흑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Ⅲ기에는 충주 구룡리 가마와 같이 흑자 생산량 보다 백자 생산량이 더 많은 가마터도 확인되지만, I·Ⅱ기의 분청사기나 백자와 함께 제작되며 가마터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던 것과 달리, 흑자를 주 생산품으로 제작한 가마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가마로는 C 군의 순천 건천리, 포천 길명리, 가평 하판리 가마터를 들 수 있다.

Ⅱ기에 이어 Ⅲ기에도 흑자는 음식기류가 계속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넓게 사용되고, I·Ⅱ기에서 보이는 저장·운반의 역할을 하는 흑자의 성격은 Ⅲ기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기의 흑자 역시 초벌 번조 후 시유 과정을 거쳤으며, 번조 받침은 굵은 모래를 사용하였고, 흑자와 백자가 동시에 번조되었다. 이 시기의 흑자는 Ⅱ기와 마찬가지로 백자의 기형을 따르기도 하나 백자는 음식기 위주로, 흑자는 저장·운반용기 위주로 생산되다 보니 흑자병과 호의 기형은 다양하게 보이는 반면, 백자병과 호는 한정적인 기형으로 적은양이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Ⅲ기의 흑자는 원료와 방법이 백자와 같은 성격이지만, 기종을 통해 알아본 흑자의 용도는 저장·운반용기로서 백자와 구분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흑자병과 호의 기형은 백자보다 더 다양하다.

Ⅲ기에 흑자가 양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 시기에 발효·저장 음식이 발달하면서 저장용기의 자기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 보다 흑자를 저장·운반용기로 널리 사용하게 된 이유 역시 음식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이나 김치 등 음식물의 색이 그릇에 물들거나, 사용처가 주로 부엌이나 장독대인 만큼 파손의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장 기능이 강조된 도기의 실용성이 도기보다 단단한 자기질의 흑자에 적극 반영되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흑자는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음식을 저장·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문헌기록과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흑자는 분청사기나 백자의 태토와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문헌에서는 도기와 다른 자기로 인식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벌 구이를 기초로 하는 도기와는 달리 초벌 후 시유하는 과정이나, 분청사기·백자와 함께 번조된 흑자의 파편을 통해 흑자를 자기질로 볼 수 있다. 흑자의 유약은 산화철을 비롯한 착색제의 함량이 분청사기나 백자에 비하여 다량 함유되어 흑색계열의 어

두운 색조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흑자의 제작양상을 살펴 시기별 특징을 세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I기(15-16세기)의 흑자는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소량 생산된 것으로, 원료·기형·번법 모두 분청사기와 유사했으나 기종은 병과 호를 중심으로 한 저장·운반기 위주로 출토된 것이 분청사기와 차이점을 가진다. II기(17-18세기)의 흑자는 백자 가마터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며, 흑자의 원료나 기형·번법은 백자와 유사한 면이 있었으나, 병과 호의 기형은 백자보다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소량이지만 흑자 발과 접시 등 음식기도 확인되었다. III기(19세기 이후)에는 흑자만 단독으로 생산하는 가마나 백자보다 흑자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가마가 확인되어 흑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I·II기와 마찬가지로 저장·운반기 중심으로 제작되어 흑자의 용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료나 번법 등은 백자와 유사한 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백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형의 흑자병과 호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처럼 흑자가 많이 생산되는 데에는 조선시대의 후기의 음식문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농·어업의 발달로 인하여 조리법이 다양해지고 저장용의 자기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곡물의 재배량이 증가되면서 계절과 풍토에 맞는 쌀과 곡식을 이용한 주류문화의 발달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호와 병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흑자는 편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기준 삼고, 흑자가 출토되는 양상에 따라 생산지의 운영시기를 설정하여 흑자의 성격을 규명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흑자는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의 발견과 가마터의 조사를 통해 연구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논고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조선시대 흑자의 제작양상과 성격을 살펴본 것에 의의를 둔다.

이후로 흑자를 동반 생산한 가마들의 요업사적 위치를 비롯하여 흑자의 수요층은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흑자가 수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독자적인 한 영역을 차지하고 꾸준히 생산된 흑자에 대해 생활문화사적 관점을 더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흑자가 도자사에서 오랫동안 견지해온 인문적 특성까지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_朝鮮時代(Joseon Dynasty/Joseon period), 黑磁(black-glazed ware/black-glazed porcelains/black porcelains), 石間朱(raddle), 黑釉(black glaze), 烏窯(*oja* ceramics; raven-black ceramics), 成分分析(component analysis), 저장·운반기(vessels for storing and carrying)

참고문헌

1. 史料

『閨閣叢書』

『金馬志』

『林園經濟志』

『五洲書種』

『五洲衍文長箋散稿』

『捕盜廳謄錄』

2. 圖錄

국립진주박물관, 『김용두옹-기증문화재 도록』, 1997.

동산도기박물관, 『조선 길그릇의 재발견』, 2004.

_____, 『고려·조선시대 흑유와 석간주』, 2005.

세계도자기엑스포, 『옹기전』, 2001.

_____, 『조선도자 500년전』, 2003.

_____, 『조선관요와 지방백자』, 2005.

연세대학교박물관, 『고려·조선시대 사기그릇전』, 1994.

용인대학교박물관,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2004.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조선백자 향아리』, 1985.

湖林博物館, 『粉靑沙器名品展』, 2004.

_____, 『黑磁, 검은빛을 머금은 우리 옛 그릇』, 2010.

3. 調査報告書

慶南開發研究院, 『鎮海熊川磁器窯址(I)-鎮海市熊東面頭洞里熊川磁器窯址試掘調査略報告書』, 2001.

_____, 『鎮海熊川陶窯址』Ⅱ, 2004.

國立光州博物館, 『全南地方陶窯址調査報告』Ⅱ, 1988.

國立中央博物館·湖巖美術館, 『鷄龍山鶴峯里窯址發掘調査略報告』, 1992.

- _____, 『鷄龍山 鶴峯里窯址 二次發掘調査略報』, 1993.
- _____, 『京畿道博物館, 『京畿道 廣州 中央官窯 窯址 地表調査報告書』解説篇』, 2000.
- 畿甸文化財研究院, 『抱川 吉明里 黑釉瓷窯址』, 2006.
- 全南文化財研究院·谷城郡, 『谷城 龜城里 陶窯址』, 2005.
- 朝鮮總督府,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 1929.
- 中央文化財研究院, 『忠州 九龍里 白磁窯址』, 2005.
- 鎮海市·慶南發展研究院歷史文化센터, 『鎮海 熊川 陶窯址 II』, 2004.
- 忠北大學校博物館,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査報告書』, 1993.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丹陽 傍谷里 陶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2002.
- _____, 『蔚山 대밀·兩水亭·上三亭·三亭里遺蹟』, 2008.
- 한신대학교박물관 외, 『용인의 도요지』, 1999.
- 湖南文化財研究院, 『高敞 龍山里 窯址』, 2004.
- _____, 『長成 鶯岩里 窯址』, 2006.
- _____, 『求禮 松亭遺蹟·順天 乾川遺蹟·光陽 福星里遺蹟·光陽 東珠遺蹟』, 2009.

4. 單行本

- 姜敬淑, 『粉靑沙器 研究』, 一志社, 1986.
- _____,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 _____,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 姜萬吉,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4.
- 農商工部所管, 『官立工業傳習所報告』第一回, 1909.
- 高鳴廣夫, 『陶磁器釉の科學』, 內田老鶴圃, 1994.
-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閨閣叢書』景印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 김영원, 『조선백자』, 대원사, 2001.
- _____,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方炳善, 『조선후기 백자 연구』, 一志社, 2000.
- _____, 『순백으로 빛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 _____,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 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宋在璇, 『우리나라 옹기』, 東文選, 2004.
- 아사카와다쿠미, 심우성 역,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 熊海堂,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南京大學出版社, 1995.

- 유봉화, 『한국문화와 역사의식』, 신구문화사, 2005.
- 윤숙자, 『규합총서』, 질시루, 1999.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 _____, 『우리 옛 도자기』, 대원사, 2002.
- 이강자 외, 『국역 增補山林經濟』, 신광출판사, 2003.
- 李慶善, 『閨閣叢書』-家庭百科의 古典-, 新丘文化史, 1974.
- 이상태·최봉영 외,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2003.
- 李英子, 『甕器』, 열화당, 2006.
- 정병락, 『옹기와의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1997.
- 鄭良謨, 『옹기』, 대원사, 1991.
- _____, 『韓國의 陶磁器』, 문예출판사, 1991.
- _____, 『너그러움과 해학』, 학고재, 1998.
- 조재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2001.
- 진홍섭, 『청자와 백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7, 一志社, 1998.
-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工政會出版部, 1931.
-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1991.
- Nigel Wood, *Chinese Glazes*, A&C Black, 1999.

5. 論文

- 姜敬淑, 「분청사기의 특징과 변천」, 『粉靑沙器名品展』, 湖林博物館, 2004.
- 고경신 외,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유적 출토도편의 과학적 분석연구」, 『忠州九龍里白磁窯址』,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 高旼廷, 「慶尙南道 窯址 出土 硬質과 軟質白磁에 대한 物性 및 原料 分析-頭洞里, 白蓮里, 沙村里를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 金京中, 「江原道 白磁가마터 研究-原州地域을 中心으로」, 翰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 김규호 외, 「진해시 웅천도요지 출토 도자기의 과학기술적 분석 연구」, 『鎭海熊川陶窯址』II, 慶南開發研究院, 2004.
- 김규호 외, 「경기도 포천 길명리 가마터 출토 흑유자와 백자의 과학기술적 분석 고찰」, 『抱川吉明里黑釉瓷窯址』, 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 김기숙 외,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채소 및 과일류의 저장법과 조리법에 관한 고찰」, 『生活科學論集』12,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9.

- 김성미·이춘자, 「〈증보산림경제〉의 장류(醬類) 조리 가공에 관한 연구」,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4.
- 金希善, 「朝鮮後期 社會·經濟的變動이 食生活에 미친 影響」,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1987.
- _____, 「어업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본 음식디미방과 규합총서 속의 어패류 이용 양상의 비교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韓國食生活文化學會, 2004.
- 남진주, 「朝鮮後期 烏瓷의 개념과 특징」, 『역사와 담론』56, 2010.
- 羅善華, 「甕器淵源 小考」,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2000.
- 朴亨順, 「朝鮮時代 地方의 白磁가마에 대한 研究 -忠淸·全羅·慶尙道를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方炳善, 「朝鮮後期 白磁의 製作技術 研究」, 『美術史學研究』214, 韓國美術史學會, 1997.
- _____, 「楚亨 朴齊家·繪菴 李喜經의 도자인식」, 『美術史學研究』238·239, 韓國美術史學會, 2003.
- _____, 「조선 후기 사기장인 연구」, 『美術史學研究』241, 韓國美術史學會, 2004.
- _____, 「19세기 조선 백자」, 『운현궁 생활유물』Ⅲ, 서울역사박물관, 2006.
- 申炳周, 「19세기 중엽 李圭景의 學風과 思想」, 『韓國學報』20, 一志社, 1994.
- 신영주,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13, 우리한문학회, 2005.
- 禹京美, 「朝鮮前期 粉靑沙器의 새로운 器形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 원주안, 「석간주 陶磁器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尹龍二, 「朝鮮時代 白磁항아리-用途와 變遷을 중심으로」, 『조선 백자 항아리』,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5.
- _____, 「조선도자의 변천」, 『조선시대도자명품도록』, 덕원미술관, 1992.
- _____, 「朝鮮 19世紀 分院白瓷의 特色」,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4.
- _____, 「高麗·朝鮮時代 砂器그릇·靑靑瓷·黑(褐)釉·石間硃」, 『고려·조선시대 사기그릇전』, 연세대학교박물관, 1994.
- 이은옥 외, 「朝鮮後期 白瓷食器의 종류와 쓰임새」,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19,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4.
- 이정복, 「석간주(石間硃)에 관한 고찰(考察)」, 『고려·조선시대 흑유와 석간주』, 동산도기박물관, 2005.
- 이종엽, 「옹기의 명칭과 쓰임새」,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원광대학교 박물관, 1997.
- 이재황 외, 「철화분청사기 철화안료로 사용한 석간주 연구」, 『문화재과학기술』2, 2003.
- 이철호·안보선, 「김치에 관한 문헌적 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韓國食生活文化學會, 1995.
- 長谷部樂爾, 「鐵繪靑磁·鐵彩手·鐵釉」, 『世界陶磁全集』18 高麗, 小學館, 1993.
- 張南原,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새로운 傾向」, 『考古美術』183, 韓國美術史學會, 1989.
- _____,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 『美術史論壇』6, 韓國美術研究所, 1998.
- 田勝昌,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磁性格의 變化」,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1998.
- _____, 「조선시대 백자 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한국상고사학회, 2003.
- 鄭良謨·崔健, 「朝鮮時代後期 白磁의 衰退要因에 關한 考察」,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일지사, 1993.

- 崔健,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諸問題 - 李喜經의 『雪岫外史』에서」, 『陶藝究誌』5, 漢陽女子專門大學 附設 陶藝研究所, 1990.
- _____, 「18, 9세기 陶磁論」, 『東洋學』2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5.
- _____, 「조선후기 백자의 경향」, 『조선양반생활의 멋과美』,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최윤정, 「조선중기 지방백자 연구」, 『미술사연구』21, 미술사연구회, 2007.
- 하순용, 「古書에 담긴 韓國飲食에 關한 一研究」, 『詳明大學校論文集』2, 詳明大學校, 1972.
- 下中邦彦, 「李朝 染付·鐵砂·白磁」, 『陶器全集』17 李朝, 平凡社, 1960.

국문초록

흑자란 검은색조의 유약이 시유된 자기를 일컫는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흑자는 기형과 유색·제작 방법에서 분청사기·백자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 흑자는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음식을 저장·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흑자는 분청사기나 백자의 태토와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문헌에서 도기와는 다른 자기처럼 인식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별 구이를 기초로 하는 도기와는 달리 초벌 후 시유하는 과정이나, 분청사기·백자와 함께 번조된 흑자의 파편을 통해 흑자를 자기질로 볼 수 있다. 흑자의 유약은 산화철을 비롯한 착색제의 함량이 분청사기나 백자에 비하여 다량 함유되어 흑색계열의 어두운 색조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흑자는 원료와 생산지, 그릇의 종류와 형태, 번조방법에 따라 시기별 특징을 이루는데, 세 단계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I기(15-16세기)의 흑자는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소량 생산된 것으로, 원료·기형·번법 모두 분청사기와 유사했으나 기종은 병과 호를 중심으로 한 저장·운반기 위주로 출토된 것이 분청사기와 차이점을 가진다. II기(17-18세기)의 흑자는 백자 가마터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며, 흑자의 원료나 기형·번법은 백자와 유사한 면이 있었으나, 흑자병과 호의 기형은 백자보다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소량이지만 흑자 발과 접시 등 음식기도 확인되었다. III기(19세기 이후)에는 흑자만 단독으로 생산하는 가마나 백자보다 흑자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가마가 확인되어 흑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I·II기와 마찬가지로 저장·운반기 중심으로 제작되어 흑자의 용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료나 번법 등은 백자와 유사한 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백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형의 흑자병과 호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흑자가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음식문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농·어업의 발달로 인하여 조리법이 다양해지고, 저장용의 자기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곡물의 재배량이 증가되면서 주류문화의 발달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호와 병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문헌기록을 통해 흑자에 대한 어의와 용례를 살펴보고, 출토지가 명확한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흑자의 원료와 생산지, 기종과 기형, 번법을 동시대의 분청사기나 백자와 비교분석하여 조선시대 흑자의 제작양상과 제작 시기별 특징을 도출해 낸 것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Joseon Black-glazed Porcelains: Their P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Documentary Sources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Ancient Kilns

Seo Ji-young *

Black-glazed porcelains from the Joseon period, distinct from buncheong ware or white porcelains in terms of shape, glaze, and firing method, bear strong witness to the rich diversity of Joseon ceramics. This variety of Joseon ceramics is one of the most notable ceramic traditions in East Asia. Black-glazed porcelains appears to have been ceramics used to store and carry liquid and other things, as confirmed by documentary sources and chemical analysis of evidence found in kilns from this period.

Component analysis revealed that Joseon black-glazed porcelains are made of white clay and ingredients that are similar to those used for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s from the same period. Documentary sources, meanwhile, show that black-glazed porcelains, made of white clay, were perceived in Joseon as sturdier vessels than earthenware vessels. Also, unlike earthenware, which is fired only once, black-glazed porcelains are glazed and fired twice, just like regular porcelains, as shown by the analysis of fragments found in a kiln, along with those of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s. Glaze used for black porcelains

* Korea Cultural Heritage Institute

during the Joseon period contained twice to four times more oxidized iron than the glaze used for *buncheong* ware or white porcelains; hence, the dark color.

Joseon black-glazed ware varies in terms of clay and glaze and region of production. Types of vessels and firing methods changed over time. Three stages can be distinguished in the evolution of Joseon black-glazed porcelains. During the first phase (15th and 16th centuries), they were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at *buncheong* ware kilns. These black-glazed wares are similar to *buncheong* ware, in terms of ingredients, shapes, and firing methods, but are distinct from the latter in that they are mainly, vases and jars, in other words, storage vessels. During the second phase (17th and 18th centuries), they started to be produced at white porcelain kilns. Although similar to white porcelains in ingredients, shapes, and firing methods, black-glazed vases and jars from this period were more varied in design than white porcelain vases or jars. During the third phase (19th century and thereafter), there was the emergence of kilns producing either exclusively or mainly black-glazed ware, and this was accompanied by an overall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this type of ware. Just as the first and second phases, black-glazed vessels produced during this period were also vessels for storing and carrying. Meanwhile, although they tended to be similar to white porcelains in terms of ingredients and firing methods, vases and jars in black-glazed ware from this period have at times original shapes that are not seen among white porcelain ones. Such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black-glazed ware appears to have had to do with the food cul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Advances made in farming and fisheries techniques made a larger variety of foodstuff available, which, in turn, led to the development of new accommodation techniques. Such developments are likely to have driven up the demand for vessels for storing food. With the increased production of grain, surplus grain was used to brew liquor, possibly boosting the demand for vases and jars for storage purpo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nstructs th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f black-glazed porcelains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both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documentary sources and the careful examination of surviving items whose site of production is precisely known, comparing them with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s in terms of clay and glaze, production sites, types of vessels, shapes, and firing methods.